그 사람 지금은

(22) 신순범 前국회의원 〈하〉

"김현철 비리 폭로…YS에 밉보여 결국 은퇴"

"제가 1995년 호남정유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1천만원을 받아 기소됐지만 이는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유세 중에 '김현철씨가 한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비리 폭로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보복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한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괘씸죄로 희생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81년 국회의원 첫 당선 후 4선까지 승승장구하던 신순범 전 의원은 1천만원 뇌물 수수 문제로 정계은퇴까지 했다. 이에 대한 그의 기억은 이처럼 아프기만 하다.

"받은 돈 1천만원은 모두 국정감사 경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해 7월 사고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한달여 동안 1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위로와 격려금 등 경비가 필요해지자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에서 추가 경비 2천만원을 긴급 대출받고 호남정유 측에서 지원한 1천만원을 합쳐 사용한 것입니다. 결코 청탁이나 이권에 관련된 돈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재판 중에 주민들이 세워준 저의 공적

95년 시프린스호 사건때 받은 1천만원 한달동안 국정감사 경비로 모두 사용

비가 있습니다 "

그때까지 신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침이 없었다. 항상 약자 편에서 활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뛰었다. 특히 198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던 일은 유명하다.

당시 그는 "(김정열)총리, 당시 처참했던 광주의 비디오를 본 일이 있습니까. 몸을 피해서 달려가는 어린 학생을 뒤에서 곤봉으로 내리치고 노끈으로 목을 걸어 끌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도청 앞을 지나 뒷골목으로 피신하는 한 시민을 총구 끝이 따라 돌아가다가 조준을 맞춰 방아쇠를 당기자 옆으로 퍽하고 쓰러지면서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죽어가던 장면이라든지. 대명천지 밝은 낮에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우리네 양민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시킨 것이며, 주범이 누구며 거기에 동원된 부대는 어느 부대입니까"라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았고 상당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 전 의원은 이후 12대(신민당), 13대(평민당), 14대(민주당)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1990년에는 평민당 사무총장, 1991년에는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1992년에는 민주당 대선 유세위원장, 1993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1995년에는 민주당 부총재 등에 오르는 등 그의 정치 인생은 활짝 피어났다.

하지만 신 전 의원은 1천만원 수수 사건으로 1996년 3월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중에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3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약 력

- ▲1933년 여수시(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출생
- ▲여수고, 동국대 졸업
- ▲11~14대 국회의원(4선)
- ▲평민당 사무총장, 민주당 부총재
-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 ▲(재)만광장학회 이사장

신 전 의원은 국회 청소부들에게 가장 인기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신 전 의원은 자신이 직접 쓴 서예작품을 매년 국회 청소부원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때문에 그가 국회를 떠난 뒤 어떤 청소부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서예작품을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신씨를 그리워할 정도였다. 신 전 의원은 또 14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날 때 청소부 전원을 국회 후생관 식당으로 불러 불고기를 대접했다고 한다.

신 전 의원은 정계은퇴 후 장학사업에 열중했다. 그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1991년. 장남 형준씨의 결혼 축의금 8천500만원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1억원을 채워서 만광장학재단을 설립, 여수지역 300여개 섬에 사는 고학생들 학비를 지원했다. 당초에는 해산장학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1992년 등록 시 만광(晩光)으로 바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2년 12월18일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다음날인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당직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과정에서 신순범(왼쪽) 전 의원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장학금 재원 마련에 곤란을 느껴 새로운 기금 마련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2002년 둘째 아들 영우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영우씨가 생전에 '나도 결혼식 축의금 모두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 자식의 약속을 아버지가 대신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자서전을 쓰고 지난 2005년부터는 직접 아코디언을 메고 거리로 나섰다. 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공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코디언을 배우기 위해 하루 4~5시간

환란이후 불우학생 장학기금 마련위해 아코디언 메고 직접 거리공연도 나서

씩 2년간 연습했다고 한다. 기금은 그 자리에서 자서전을 팔아서 마련했다.

"자서전 제목인 '5가지 'ㄲ'법칙 - 꿈·깡·꾀·끼·끈에 도전하라'에서 꿈은 희망, 깡은 의지, 꾀는 지혜, 끼는 소질, 끈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다섯 단어를 기억한다면 고난은 벽이 아니라 이뤄가야할 배움터가 될 것이고 결국 성공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5년 동안 1천100여명이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요즘 그는 '희망의 전도사'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기업체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강에서 그는 자신이 역경을 극복한 체험담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준다. 호소력있는 말 솜씨와 강의 도중 들려주는 판소리와 장고,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수강생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판소리 솜씨는 꽤 수준급이어서 94년 KBS 열린음악회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전주읍성

덕진둑 등 만들어 지세 보완 18만여평…광주읍성 보다 커

전주의 풍수형세는 북서방향이 비고 모자란다. 전주천을 따라 기(氣)가 빠져나간다고 건지산(乾止山)을 진산(鎭山)으로 설정했다.

허함에 대한 보완장치로 북문 옹성, 복치봉 숲정이, 덕진둑을 만들었다.

고을 이름은 685년 완산주(完山州), 757(경덕왕16)년에 전주(全州)가 됐다. 중국 광서성 계림부 장족 자치구에 전주라는 지명과 함께 부근에 완산도 있어 차용한 듯하다.

후백제 견훤 도읍지 때 견성(甄城), 고려 왕건 때 안남(安南), 이후 승화(承化)와 순의(順義)도 쓰였다.

전주나 완주는 곧 '온고을'이다. 비보(裨補)적 관점, 즉 완전하지 못한 터에 대한 염원을 지명에도 담았다. 사방에는 사고사(四固寺)까지 세워 굳게 지켰다.

전주는 광주와 닮은 점이 많으나, 달리 보인다. 즉 남고북저형 배향(背向) 형국, 견훤의 도읍지, 호남지방의 중심지로서 위상은 비슷하지만, 현재 읍성터 주위는 너무 다르다.

전주는 풍남문을 비롯하여 경기전, 객사, 오목대가 700여 채의 한옥과 어울려 고색창연하다. 광주는 조선시대 관아건물이 한 채도 남아있지 않다.

1768년 건립된 보물 제 308호인 전주읍성의 남문 풍남문.

전주 읍성터의 둘레는 3천215m이고, 총 면적은 18만여평이다. 광주 읍성보다 크고, 나주 읍성에는 조금 못 미친다. 고려 말 관찰사 최유경이 개축했던 성곽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주위 1천288보(步),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5천356척 높이 8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대문은 동문 판동문(判東門), 서문 상서문(相西門), 남문 명견루(明見樓), 북문 중차문(中車門)이다.

정유재란(1597년) 때 함락돼 파괴된 읍성은 1734(영조10)년 관찰사 조현명이 재정비하여 완전 신축했으나, 1767년 큰불이나 관아 100여동 민가 2,334호와 함께 서문과 남문이 소실됐다. 이후 남문은 풍남(豊南)문, 서문은 패서(沛西)문으로 개칭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 지명에서 땄다. 객사 명칭도 '풍패지관(豊沛之館)'이라 했다.

1775년 서호수가 중건하면서 동문은 완산주의 완자를 빌려 완동(完東)문, 북문은 북쪽을 지킨다는 의미로 공북(拱北)문이라고 개칭했다. 1842년 서기순은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이란 현판을 풍남문 뒤편에 걸었다.

태조 이성계의 어용(御容)을 모신 사적 339호인 경기전(慶基殿)은 1408년 이후 진전(眞殿)으로 부르다가 1442(세종24)년 '경사로운 국가의 기초'란 의미로 칭했다. 조경묘(肇慶廟)는 1771년 이성계의 시조 이한(李翰)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경기전 뒤편에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史庫)가 사이에 있다. 향교를 둘러싼 능선에는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축하했던 오목대가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